CHUNG WOO
관세법인 청 우

Newsletter
Dec. 2015

Monthly Customs Newsletter

[대표관세사 인사말]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느끼지만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성취감보단 아쉬움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올 겨울은 가족과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계절이 됐으면 합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FTA를 포함한 관세동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했던 사업성과가 좋은 결실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 용 남

[관세동향]

▶ 통계로 본 우리나라 위상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우리나라는 휴대폰,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노동·사회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다소 격차가 있었고 에너지 자립도 역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월 28일 발간한 '2015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은 휴대폰 출하량(1위), 반도체 매출액(2위), 선박 수주·건조·수주잔량(2위)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대수(5위), 조강 생산량 (6위) 등에서도 선두 그룹에 속했다. 반면 서비스 수출(16위)과 서비스 수입(13위)은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포천(Fortune) 500대 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 16개社가 포함돼 세계 7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브랜드가치 분야(2014년)에서는 삼성이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7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투자액(2013년, 6위), 기업의 연구개발인력(2013년, 5위),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2013년, 4위) 등 연구개발 분야 역시 글로벌 수준이었다.

전자정부지수(지난해 기준 1위), ICT 발전지수(2013년 기준 2위),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보유 현황(올해 기준 6위) 또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제조업, 연구개발, 통신 부문의 높은 위상과는 달리 노동과 사회부문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경제활동 참가율(57.0%, 30위, 지난해), 출산율(1.26, 169개국 중 166위, 올해),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2,124시간, 3위, 지난해), 삶의 질(5.40, 40위, 올해) 등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적인 성취가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에너지 부문도 석유 소비량 8위, 원유 수입 5위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무역부문에서는 지난해 기준 수출이 세계 7위, 무역규모는 9위, 무역흑자 규모는 13위로 세 분야 모두 2013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한편 무협은 매년 170여개의 경제, 무역, 사회지표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를 정리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iit.kita.net)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관세동향]

▶ "구글의 최신 기술이 무역업계와 만나면?"

우리는 온라인과 기업경영을 떼어놓고 논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글로벌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기업도, 소량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비자 대부분이 웹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제품 판매는 꿈도 꿀 수 없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IT 기술을 활용한 경영 효율화와 온라인 마케팅이 쉽지 않다. 이에 한국무역협회와 구글이 손을 잡고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무협은 11월 2일 코엑스에서 구글과 함께 '스마트 비즈니스 아카데미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구글의 다양한 도구(Tool) 활용 방법, 온라인 해외마케팅 기법과 무협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먼저 구글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도구와 활용법을 소개했다. 구글 'Apps for Work'와 'Android for Work'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클라우드 및 모바일 기반 업무 솔루션에 대한 설명 외에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Cloud Platform)을 활용한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등을 강의했다.

특히 구글을 활용한 온라인 해외마케팅 방안이 큰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웹사이트가 없는 중소기업도 기업정보를 쉽게 온라인으로 알릴 수 있는 '구글 마이 비즈니스', 온라인 사용자 행태 등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해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돕는 '구글 애널리틱스', 키워드 별 검색량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등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도구와 분석 자료 등이 인기를 얻었다.

한편 무협은 글로벌기업 간 거래 사이트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와 해외 소비자 대상 직판 사이트 케이몰24(Kmall24.com)를 활용해 자사 홈페이지가 없는 중소기업도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사이트에 간접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무협 최원호 e-Biz지원본부장은 "구글에서 관심 있는 제품을 검색해 보는 것은 대부분의 바이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바이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세동향]

▶ 한·중·일, 무역원활화 및 안전 위해 손잡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위조 상품·마약 등 부정무역을 막기 위해 한·중·일 관세당국이 손을 잡았다. 관세청은 10월 31일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5차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행정 협력 증진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4년만에 열린 것으로,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의 지속적인 이행과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부속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3국 관세당국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활발한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정보 공유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3국은 전자상거래 등 변화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업자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재권 침해정보 교환 등 'Fake Zero Project' 활성화, 민관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재권 보호 국경조치 정보 공유 및 신종마약 등 단속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 한·중 및 한·일 AEO MRA 체결 효과를 공유하고, AEO 제도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AEO 도입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국 청장회의와 별도로 한·중, 한·일 양자회의를 열어 중국과는 AEO와 FTA 이행을, 일본과는 금괴밀수 단속 등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한·중 관세당국은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와 'AEO MRA 개정문'을 체결했다.

'한·중 FTA 이행을 위한 MOU' 체결로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FTA 특혜적용 물품의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체결한 양국 간 AEO MRA를 개정해 중국의 변화된 기업관리제도를 상호인정약정에 반영하는 등 양국 AEO 기업이 MRA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동향]

▶ 명품가방·시계 등 개별소비세 '원위치'

명품 가방, 시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일명 '사치세' 감세로 논란이 일어난지 2달만에 과세기준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과세기준을 완화했음에도 가방, 시계 등의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8월 27일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향 조정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6일 발표하였고, 11월 27일부로 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환원대상은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 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으로 이들 제품의 과세기준이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고급가구의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조정한다.

해당 품목은 판매가격을 낮춰 소비를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높였으나, 그 인하분만큼의 가격이 낮춰지지 않아 다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보석, 귀금속, 모피와 같이 가격 인하가 이뤄진 품목의 과세기준은 500만원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000원으로 낮춘「관세법 시행령」개정안도 11월 26일부로 시행한다.

[관세동향]

▶ 북한, 對중 무역·투자·인적교류 모두 감소세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물적·인적 교류가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지난해 북한의 對중 투자액도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북한의 對중 수출액(중국 기준)이 올 6월 말 기준 11억 7,000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10.6% 줄었으며,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수입액(13.3억 달러)도 15.8%나 줄어 수출입 모두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는 석탄 등 자원류의 가격 하락으로 對중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섬유류(의류)에 대한 가공무역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 동향은 지난해 모두 증가세였고, 올해(상반기 기준)는 수입만 감소세다.

투자 분야 감소세는 무역보다 더 심각했다. 북한의 對중 투자액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3년 268만 달러로 최고치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29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의 對북 투자액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2년 對북 투자액은 전년보다 2배 늘어난 1억 1,000만 달러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후 2년 연속 줄면서 지난해엔 5,000만 달러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對중 방문자 수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북한의 방중인원은 2013년 20만 7,000여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지난해 두 자릿수(10.7%)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 상반기엔 9만명에 약간 못 미치며 2.3%가 또 줄었다. 다만 올 1~6월 중 전체 북한 방문객 중 근로자 숫자가 4만 7,000여명을 기록하며 7.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무협은 북한이 관광과 회의 참가 등 교류 인원은 줄이면서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 파견만 확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총 1,236만명에 달했는데, 이 중 근로자 비중이 13.0%를 차지한 반면, 북한은 그 비중이 절반(중국 내 외국인 입국자 평균치의 4배 정도)을 넘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협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북한의 對중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역, 투자, 인적 방문 등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북한경제의 활성화는 중국과의 자본 및 상품거래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관세동향]

▶ ‘시내면세점’ 신세계·두산 웃고, 롯데·SK 울었다

시내면세점 자리를 두고 펼친 입찰에서 신세계와 두산은 선정에 성공했으나, 롯데(월드점)와 SK는 탈락하면서 면세사업에서 빠지거나 한발 물러서게 됐다.

관세청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11월 14일 후속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신세계조선호텔(부산), ㈜호텔롯데 소공점은 자리를 지켰으며, SK네트워크㈜와 ㈜호텔롯데 월드점은 빠지고 대신 ㈜신세계디에프, ㈜두산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충남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디에프코리아가 합류했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 및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11월 18일 발표하고,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의 재고물품 관리를 위해 외국물품의 신규 반입을 제한하고, 현재 재고물품 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했다(특허만료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물품은 반입 허용). 또한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신규 반입과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환급대상 물품은 반입 불가).

[FTA뉴스]

▶ 베일 벗은 TPP 협정문, 한·미 FTA와 유사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5일 TPP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가 앞서 체결한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시장접근 분야는 TPP 협상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한 결과, 관세는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는데, 이는 우리가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비슷하다.

TPP 협정문에서 공산품은 TPP 10개국이 장·단기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99.8%),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는 예외 없는 완전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출발했으나, 협상 중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비교하면 공산품의 경우 이미 발효 후 관세 철폐가 상당히 진행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미 FTA(발효 6년 차)에서는 미국 공산품의 95.8% 관세가 철폐할 예정이며, 캐나다(95.9%, 발효 3년 차), 호주(96.0%, 발효 4년 차) 등에서도 대체로 시장 선점효과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TPP 미·일 양허와 한·미 FTA를 비교하면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최장 10년 내 철폐다.

반면 기계,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은 일본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2021년 1월 1일)해 TPP 발효 시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자동차, 철강 등의 고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TPP 규범 분야를 보면 WTO,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 논의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앞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신규 챕터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가 TPP에 참여하면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뉴스]

▶ **FTA 해외 활용 애로, 이렇게 해소하세요!**

올 한 해 전국 FTA 상담부서를 통해 해결한 FTA 활용 애로 해소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관세청은 11월 18일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해결한 FTA 활용 애로 사례를 모아 'FTA 해외 활용 애로 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6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의 FTA 상담부서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 중 우수 해소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FTA 상담부서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개최했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대구세관 송지미 행정관과 대구텍이 뽑혔고, 우수상은 부산세관 정진원 행정관과 관세법인 대유, 서울세관 정선 행정관이 수상했다.

특히 주목할 사례는 최우수상으로 뽑힌 대구텍의 해결방법이다. 이 업체는 기술보호를 위해 아태무역협정(APTA) 특혜활용을 포기하던 것을 차이나센터와 상담을 거쳐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술 유출의 우려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APTA 특혜 활용을 통해 수출을 확대했고, 한·중 FTA 신청준비도 미리 준비하는 등 한 발 앞선 지원에 성공한 사례로 적극적인 FTA 지원행정을 잘 보여줬다.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문제 핵심을 놓침으로써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상담방법을 소개하는 등 FTA 상담요원에 대한 능력배양 교육도 병행해 FTA 컨설팅 능력을 높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FTA 활용 애로 해소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FTA 상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FTA 활용 애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진대회 수상작은 ▲BOM 제출방법 개선으로 對중 수출 APTA 활용 증대(APTA), ▲원산지 관리 이제 어렵지 않아요(한·미 FTA 통관절차), ▲호주産 헬륨가스, 직접운송 인정받아 FTA 혜택받다!(한·호주 FTA 직접운송), ▲통관애로 해소의 제1덕목은 '소통'(한·ASEAN FTA 규정해석), ▲YES FTA 아카데미, 해외통관애로 저격(한·EU FTA 검증요청), ▲FTA 투게더(한·ASEAN FTA C/O 불인정), ▲국내수출자 보호를 위한 C/O 서식 개선으로 수출활로 증가(한·ASEAN FTA 규정·절차), ▲한·ASEAN FTA 협정 일반품목 해석 오류로 협정관세 배제(한·ASEAN FTA 협정·규정), ▲BWT수입-그 물건이 그 물건인가?(한·미 FTA C/O 불인정) 등 9편이다.

[AEO뉴스]

▶ **對캐나다 수출, 통관 더 빨라진다**

11월 1일부터 캐나다로의 수출이 더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11월부터 '한·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며,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특히 캐나다는 올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돼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20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올 9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우리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AEO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AEO 업체명을 대조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